

영암군-Y마트, 지역 농특산품 판로 확보 손잡아

상생협약 체결 지속 가능한 농업유통 발전 찾아 농특산품 유통 활성화·농가소득 증대 투트랙 전략

영암군에서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대형 유통기업인 Y-마트물류(회장 김성진)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승희 군수와 김성진 Y-마트물류 회장, 나병수 재공금정면 향우회장, 임재상 물류본부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군에서는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직거래를 확대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안전하고 신선한 영암산 농특산물 우선구매 확대 ▲ 지속 가능한 농업유통 발전 ▲ 고품질 우수 농산물 및 차별화된 특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 농산물 생산지도와 판로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승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Y-마트물류와 함께 동반성장이라는 계기가 되고 지역 농특산물이 재고를 받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진 Y-마트물류 회장은 영암 금정면 출신으로 남다른 고향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협약식이 끝난 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군민장학회 5백만 원을 기탁하고 코로나19 방역용으로 KF-94 마스크 5천매를 함께 기탁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컨설팅

영광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관내 감염취약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사항과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환자 발생시 접촉자 분류, 감염관리, 확진자 비확진자간 동선 분리 등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역량강화와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시설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고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은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연기자

김지하 문화제,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서 27일 개최

고(故) 김지하 시인의 별세 100일이 지난 가운데 목포김지하문화제추진위원회, (재)아시아인문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김지하 문화제'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김 시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씻겨주는 씻김굿(송순단,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제 조교)을 시작으로 대표 작품 낭송, 노래 공연, 임진택 명창의 창작판소리 공연 등으로 그의 인생을 회고한다.

이와 함께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의학박사 최태욱씨 등이 참여해 김 시인의 삶과 문학, 목포 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장 주변에는 시인의 어록, 김봉준 화가의 조각 작품 등이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 시인은 고향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가족과 함께 원주로 이사했다. 목포는 그가 유·소년기를 보낸 추억과 함께 시인의 감수성이 형성된 곳이자 문학의 뿌리가 자란 곳이다.

김 시인은 '오적(五賊)', '타는 목마름으로', '비어(藍語)' 등과 같은 작품으로 엄혹한 1970년대 민주화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 저항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위선을 전통 판소리 가락에 맞춰 호통과 욕설을 섞어 조롱하고 신랄하게 비판해 억압받던 민중의 분노와 시름을 달래주는 등 민족 문학의 뜨거운 상징이 됐다.

김성옥 목포김지하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서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김지하 시인의 고향인 목포에서 열리는 이번 문화제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치열했던 시인의 삶과 문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대추연구회, 선진지 견학 실시

회원 24명 대추 생산·가공 체험농가 '주주바람' 방문 재배 및 가공기술 배워



함평군 대추연구회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성시로 대추 재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대추연구회 회원 24명은 대추 생산·가공 체험농가인 '주주바람'을 방문해 대추를 활용한 다양한 재배 및 가공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견학을 통해 쿠키, 과자, 대추조청 등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기술과 체험농장, 카페 운영 등 유통 과정을 견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또한, 대추연구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통해 이번 견학을 통해 배운 다양한 대추 가공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란 함평천지대추연구회장은 "대추 가공방식이 단순히 생대추, 건대추에 등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대추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2022 청년농업전문학교 수료식 개최

무안군은 최근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2 청년농업전문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로 개설된 청년농업전문학교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설계과정을 진행해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생들의 영농창업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교육기간 동안 배운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군은 청년농업전문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청년영농단을 구성해 이들의 실패 없는 창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 2022년 소금박람회 성료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2 소금박람회」가 4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22 소금박람회 행사는 국산 천일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및 6개의 테마관 48개 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2022 한가위 명절선물전과 함께 열린 만큼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회의 위상과 역사에 걸맞은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천일염 홍보 및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를 창출하였고 특색있는 홍보 마케팅을 경험한 방문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